

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46호
2026.10



이동민_ 자유, 평등, 박애

세번째 원고

김혜현_ 방향 바꾸기+현재에 살아가기

아홉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

스무번째 원고

한량윤씨_ 창고가 필요해-2

열두번째 원고

김희진_ 삶을 진정성 있게

서른세번째 원고

조은영_ 6. 모든 것의 확장 가능성과 확장 가능한 모든 것

여섯번째 원고

이채연_ Long Goodbye

서른아홉번째 원고

자유, 평등, 박애



이 동 민

자전거와 투르드프랑스를 연구하는, 서양사학자



2

세 가지 이상은 처음부터 하나였을까?

오늘날 프랑스 공화국의 표어로 자리 잡은 자유·평등·박애.

그런데 1789년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자유와 평등은 있지만
박애는 없습니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Article 1.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s.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존속한다.”

~~FRATERNITÉ~~
(박애)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세 단어가 하나의 표어로 결합한 것은 별도의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Révolution française

3

자유와 평등은 어디에서 왔을까?

자유와 평등의 사상적 뿌리는 프랑스혁명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Le Clergé
(제1신분)
성직자

La Noblesse
(제2신분)
귀족

Le Tiers État
(제3신분)
평민
(농민 · 도시 시민)

IMPÔTS
(세금)
Taille (직정세)
Dime (십일조)
Gabelle (소금세)
Corvée (노역)

Locke
(1632-1704)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자연권
생명 · 자유 · 재산
정치권력의 정당성

De l'Esprit
des lois

권력의 분립
권력의 제한
법의 지배

Montesquieu
(1689-1755)

Du
Contrat social

인간의 불평등
일반의지
정치공동체의 정당성

Rousseau
(1712-1778)

로크는 자연권과
정치권력을,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제한을, 루소는
불평등과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논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상적 전통은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며
구체제의 특권질서에 도전하는 정치적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의 선언만으로 새로운 사회의 결속까지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애의 기원은 형제애였다

*Fraternité*는 본래 형제애·우애를 뜻하는 말로, 기독교적 전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FRATERNITAS

Omnes fratres sumus
in Christo.

기독교적 형제애

수도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

혁명기의 시민적 형제애

신분을 넘어 하나의 국민으로
서로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연대.

그런데 혁명기를 거치면서
이 형제애는 시민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으로
확장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결속에서 시민적 연대에 이르기까지,
형제애에는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1790년, 이 형제애가 자유·평등과 함께 하나의 표어로 제안됩니다.

FÊTE
DE LA
FÉDÉRATION
14 JUILLET
1790

FRATERNITÉ



5

거리의 언어가 혁명의 정치로

자유·평등·박애의 결합은 한 정치가의 창작물이 아니라,
혁명기 프랑스의 거리와 광장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언어였습니다.

1790년 7월, 연맹제

파리의 전장에 모인 시민들과
국민방위군은 서로를 형제로 부르며
자유·평등·형제애를 외쳤습니다.

Vive la Nation!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1790년 12월, 국민방위군 논의

로베스피에르는 국민방위군의
깃발과 복장에 '프랑스 국민, 그리고
자유·평등·박애'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PEUPLE
FRANÇAIS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상컬로트와 민중의 언어

파리의 노동자와 하층 시민들 사이에서
자유·평등·형제애는 귀족과 특권에 맞선
투쟁의 구호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상컬로트
(sans-culottes)

파리의 노동자와 하층 시민층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

국민방위군에 세 단어의 표어 사용을 제안
(1790년 12월)

자코뱅파와 정치적 수용

코르딜리에 클럽과 자코뱅 클럽 등
혁명 정치세력은 이 언어를 보다 조직적인
정치 프로그램과 제도적 상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SOCIÉTÉ
DES JACOBINS

로베스피에르가
이 세 가치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혁명기의 시민들과 결사체들
속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자코뱅파가 국가와 군의 상징에
수용한 것이지요.

이렇게 아래로부터 형성된 혁명의 언어가 상위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했지만,
자유·평등·박애의 의미와 쓰임은 **아직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6

자유·평등·박애, 아니면 죽음을!

1793년, 프랑스 공화국은 대외전쟁과 국내 반혁명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Unité, indivisibilité
de la Républiqu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ou la mort.**

혁명적 형제애는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누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인가를
가르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혁명적 단결의 이상은 정치적 강제와 결합했고,
세 단어는 아직 안정된 국가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7

1848년, 공화국의 원칙으로 부활하다

혁명과 제국을 거치며
잠시 잊었던 자유·평등·박애는
1848년 2월 혁명과 함께
다시 공화국의 언어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파리의 대주교 아프르는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자유를 축하하며,
공화국의 형제애를 기독교적 사랑과
연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848년 헌법은
자유·평등·박애를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제 혁명의 구호가 국가의
언어가 된 것이지요.

RÉPUBLIQUE FRANÇAISE
CONSTITUTION
DU 4 NOVEMBRE 1848

PRÉAMBULE

IV. Elle a pour principe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Fraternité.
V. Elle a pour base
la Famille, le Travail, la Propriété,
l'Ordre public.

1848년 11월 4일
제2공화국 헌법
전문 제IV항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 요구와
공화국의 이상이 결합하며,
자유·평등·박애는 보다 넓은 사회적 연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노동 문제와 공화국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같은 해 6월 파리 봉기가
유혈 진압되는 등, 세 단어의 의미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1848년, 자유·평등·박애는 헌법의 원칙으로 부활했지만,
그 의미와 실현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8 제3공화국, 세 단어를 **국가의 상징**으로

1848년 헌법에 명시되었던
자유·평등·박애는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1852~1870)에서 다시
공식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 제정이 붕괴한 뒤
수립된 제3공화국(1870~1940)은
공화주의의 이상을 재확인하며,
자유·평등·박애를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 표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1880년 7월 14일
공공건물 정면에
'자유·평등·박애'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던
혁명의 언어가 이제
국가의 건물에 새겨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화주의의 이상이
된 것이지요.

La République frança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또한 제3공화국은
쥘 페리의 교육개혁
(1881~1882)을 통해
무상·의무·세속 교육을 확립하고,
공화주의적 시민 정체성을
교육으로 형성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평등·박애는 혁명의 구호를 넘어,
프랑스 국민의 공화주의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9 형제애는 어쩌다 **박애**가 되었을까?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공화주의 사상은 일본의 자유민권운동과 번역 출판물 통해 동아시아에 소개되었습니다.



나카에 초민 (中江兆民) (1847~1901)

自由民權運動

自由と東人民の權利

그 과정에서 Fraternité는 형제·동포·우애·박애 등 여러 한자어로 옮겨졌습니다.

Fraternité
(형제애)



나카에 초민은 1887년 『삼취인경륜문답』에서 '자유·평등·우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박애'만이 유일한 번역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 Fraternité → 友愛 (우애)
- frère → 兄弟 (형제)
- fraternité → 同胞主義 (동포주의)
- solidarité → 博愛 (박애)
- humanité ? → 博愛 (박애)

그렇게 프랑스의 정치적 형제애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번역어와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10

자유·평등·박애, 끝나지 않은 질문

자유·평등·박애는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이념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적 전통에서 출발한 세 가치는
혁명과 정치적 갈등, 공화국의 제도화와 번역을 거치며
오늘날의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사상적 기원

계몽사상과
자연권 사상

혁명과 갈등

1789년 혁명,
1793년의 급진화

공화국의 제도화

1848년 헌법,
제3공화국의 정착

동아시아의 번역

우애, 동포, 박애 등
새로운 의미의 획득

중요한 것은
이 세 단어를 단순히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자유와 평등, 형제애라고
불렀는지 이해하는 일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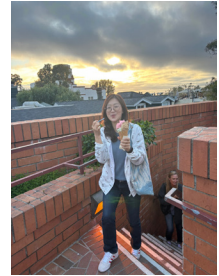
누구의 자유인가?
무엇의 평등인가?
그리고 누구와의 **형제애**인가?



방향 바꾸기 + 현재에 살아가기

김 혜 현

5년차 갤러리스트



몇 살에 죽을 것인지 고려해 보았을 때, 75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최근에서야 죽을 나이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간병인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의 부고 소식을 종종 접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90세 전후로 생을 마감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75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30년 정도 남았다.

고등학교는 문과 쪽이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수학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싫어서 그 수업을 피하려고 이과가 아닌 문과를 선택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재수를 선택하고 이과로 수능을 다시 쳐야 했다. 학부 전공은 유전공학과, 대학원은 생물학과 신경생물학 전공이었다. 신경생물학 실험실 대학원생으로 6개월 다니다가 미국에 교환연구원으로 가게 되었다. 미국 00주립대에서 1년 동안 교환 연구원으로 일했다. 학부 전공도 나름 재미있게 했었지만 신경생물학을 가장 좋아했었다. 다만 동물 실험을 너무 많이 해서 종종 우울했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0대 중반의 나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저세상으로 보낸 생쥐, 들쥐, 주머니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척추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대학원생 시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 낳았다. 그리고 하나를 더 낳았다. 3년 터울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8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막내 아이가 21개월쯤에 어린이집에 가는 그 날부터 나는 바빠졌다. 천연염색 공예를 배우러 다니고, 1년 뒤에는 작은 공간을 얻어 문화

공간을 시작하게 되었다. 육아를 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지 마음이 급했다. 36살쯤에 시작한 문화공간은 4년 뒤에 한 번 이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아트 갤러리로 업종을 변경해서 5년 동안 신나게 전시를 했다.

5년이라고 말하면 너무 쉽게 그 시간을 지칭한 것 같다. 그 안에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온갖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고, 매번 외부적인 상황에 휘둘리면서 당황하다가 3년 반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공간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고생한 게 너무 속상했던 탓인지, 그 뒤로 1년 반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공간을 더 운영했고 나는 타국에서 운영에 참여했다. 해외에 나와서 새로운 공간을 열고 싶었지만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 자본금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해보였다. 또 한 번의 커리어 전환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다.

지금은 간병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서 갑자기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어 어리둥절했지만, 그간의 다양한 커리어 경험에서 얻은 것은 컴퓨터 다루는 것과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본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간병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은 적응하기가 쉬웠다. 인공지능 덕분에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기술 최첨단 시대에 제대로 태어난 것일까. 세포를 다루는 현미경부터 시각예술 작품 설치 및 인력 관리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다뤄 봤으니, 누가 보면 첩보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간첩이라고 해도 믿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애를 셋 낳아서 키우며 대안교육 기관에 10년 이상 보냈었는데, 그 경험 덕분에 20~30인분 요리도 언제든 가능하다. (맛 보장은 안 되지만, 한번 먹어보면 뭐든 조리가 가능하다.)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 셋 다 십 대 청소년들이고, 종종 진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곤 한다.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한다. 지금 당장 하나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하나를 결정해서 평생 그 일만 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들 아빠는 화학을 전공해서 지금까지 30년을 그 일만 하고 있다. 물론 생산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의 시간에서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믿는다.

또 한 번의 큰 전환기였던 2026년, 이제 올해도 두 달 정도 남았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한다. 회사에는 안정적으로 적응했고, 큰 무리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를 못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말은 알아듣고, 읽고 쓰는 일들은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중요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올해 남은 중요한 결정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로서의 나의 역할과, 그와 병행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직무 관련 공부에 관한 것이다.

나는 예술 창작자는 아니다. 아티스트를 도우며 함께 일하는 갤러리스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해왔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잠정적으로 휴업인 상태라 이제부터는 주로 작가를 홍보하고 전시 관련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일은 바로 글을 작성하는 일이다. 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미술, 미술사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고민만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어서 글을 쓰는 분들에게 일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직무 관련 공부를 포기하지 못한다. 커리어 전환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도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다.

몇 년 전에도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글을 쓴다면 유명한 예술가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내 주변의 예술가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갤러리 2년 차에 과감히 시도했었으나, 10편 정도의 글을 쓰고는 멈추었다. 그 글을 쓰면서 정말 괴로웠었다. 내가 괴로웠던 이유는 작가들의 작품이 너무 훌륭하데 내 글이 너무 형편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비슷한 마음이다. 시각예술은 언어로 소개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도해 봐야 하는 점들이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와 마틴 게이퍼드, 이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함께 펴냈다. 서로에게 얼마나 큰 지지가 되었을지 감도 안 잡힌다. 아니, 너무 부럽다. 그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된 책들은 읽을수록 깊이 빠져든다. 예술가의 작업을 함께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이 그렇게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SONG EUN KYUNG 15th SOLO EXHIBITION

2026.10.23-11.5

MY LOVING LIFE -season 2

나의 사랑하는 생활 - 두번째 이야기 (아직도 사랑할 것이 많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시즌2
oil on canvas 18×18cm 2026

일상의 소소한 순간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따뜻함과 행복을 동화적인 색채와 형태로 담아 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시즌2
oil on canvas 18×18cm 2026

MH
GALLERY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422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4층 MH GALLERY
송은경: 010-8542-3881  golden_q1029 / 공동기획자 김혜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나 역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작가들이 떠오른다. 모두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함께하고픈 작가들이 있다. 그들의 작업을 가장 많이 들여다봐 주고 공감해주는 후원자이자 갤러리스트로 남고 싶다.

앞으로의 글쓰기의 방향은 결국 주변의 예술가를 소개하는 것이 되겠다. 비록 미미한 도움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앞으로의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싶은 일 중에 가장 우선에 있는 일이다. 다음 주에 송은경 작가의 개인전이 안산에서 있을 예정이다. 작가님과 개인전부터 아트페어까지 다양한 전시를 함께했었다. 2023년 겨울부터 매년 전시를 했으니 이제는 작품을 딱 보면 안다. 저 삼각형은 어디에서 오고 저 사각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작품 속 캐릭터는 고양이 얼굴을 하고 붓과 국자를 들고 있고 하이힐을 신고 있는지. 작가가 진정 가고 싶어 하는 그 방향과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작품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매년 개인전을 함께하다 보면 30년도 지나가리라 생각해본다. 30년쯤 뒤에 우리들은 각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말이다. 어떤 늙은이가 될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매일 오늘만 살고 오늘 만난 작품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다지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 나는 현재에 산다. 언제나 현재다.”

- 데이비드 호크니



2026 안산아트쇼

The 8th Ansan International Art Show

서울 문화예술대학교 ART & DESIGN 학과 졸업

초대 개인전

2023~2025 Redboots Gallery 경기 의왕

2024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당카페 경기 안산

2015 상록구청 갤러리 경기 안산

2014 안양 청소년수련관 만수갤러리 경기 안양

개인전

2519 올갤러리 서울 인사동

2013 31갤러리 서울 인사동

2013 안양아트센터 이담 갤러리

Booth 개인전

2023~2025 안산국제아트쇼

2024~ 2025 인천아트쇼

2023~ 2025 Redboots Gallery 전속작가

안산미협 회원

송은경 화실 대표

2011~2015 뉴코아 아울렛 문화센터 강사

서양화, 아동 미술 (안산점)

Booth No.810

Artist 송은경

SONG EUN 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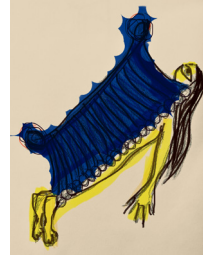


개막식 : 2026.10.13(화) 5PM

전시기간: 2026.10.13~10.18

전시장소: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화랑 전시관 전관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



X
작가 & 전시기획자

“.....꿈에서 나는 이동하는 공간에 있다. 어딘가와 어딘가 사이를 오가게 하는 공간이다. 때로는 여행 트렁크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때로는 버스를 탄다. 마치 프로이트가 로마로 떠나는 여행 꿈을 꾸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설레지 않는다. 목적지를 늘 모르기 때문이다.....”

출발

누군가 나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있다. 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느냐는 질문이다. 한국을 떠나 유학했거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늘 따라붙는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에게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살고 싶느냐는 물음이라기보다 ‘살기 힘든 한국에 왜 돌아왔느냐’는 뜻으로 들리곤 했다.

더 나은 곳을 찾거나 고국과의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품어 온 ‘떠나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실 나의 ‘그곳에 가고 싶다’는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곳’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실패의 기로에서 방황하면서, 나는 ‘그곳’이 결국 정신적으로 나를 “받아들임”, 그리고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05년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 준비를 할 때, 나는 아버지를 비디오카메라로 찍으며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는 그때 나에게 어디를 가든 한국이 나의 베이스캠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이 말은 타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 일하면서 비로소 실감한 것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겪은 배척과 얇은 인간관계는, 타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달리 “인간적 폭력”으로 다가왔다. 학벌과 돈으로 쉽게 사람을 가르치고, 약자를 예의 없이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현상은 나에게 폭력 그 자체였다. 같은 국적을 지니고 같은 식문화를 공유해도, 사람들은 결국 한국 사회의 틀과 형식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 쪼개는 분류 때문에 불편해한다.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만남은 뒤로 밀려난다. 우리는 서로를 “타인=외국인(Others=Strangers)”으로 반복해서 만들어 낼 뿐이다.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타자를 향한 갈망이었다. 그 안에는 국적도, 나이도, 학력도 없었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예술적 자유 역시, 한병철이 말한 연대와 유대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함께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방향은 한국에서 나의 베이스를 다시 찾으며 겪은 “인간적 고민”을 통해 마침내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때로는 인생의 고민이고 때로는 예술의 고민이기도 했던 이 인간적 고민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나는 왜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나와 예술은 내 사주나 운명에 얽혀 있는지, 나에게 자살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고민은 터널을 지나듯 흘러가 어느새 끝에 다다랐고, 어느 날 나는 나의 베이스캠프가 더 이상 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인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전쟁이 끝나면 베이스캠프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많은 일과 수많은 사람과 나눈 대화가 내가 간직해 온 질문들과 교차하며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가 말한 베이스캠프는 나의 근원을 찾게 해 주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방향하며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물었다. 이 과정에서 나를 둘러싼

지역, 나라, 공간, 사람은 때로는 나와 충돌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며 나와 나란히 궤적을 그려 갔다. 그리고 마침내, 예술가라는 존재 자체가 곧 “살아 있는 항거(vivente contestazione, living Protest/contestation)”라는 파졸리니의 말은 오히려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정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아니요”를 지나 마침내 도달한 “네”라는 대답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자본에 쉽게 흔들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가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결국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서로를 욕심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때 타국에서 만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예술가들은 나에게 수많은 경험과 조언을 들려주었고, 나는 늘 그들을 떠올리며 예술 안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시간과 나라를 초월하며 자연스러운 서사시를 만들어 내는 작품 뒤에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다고 늘 믿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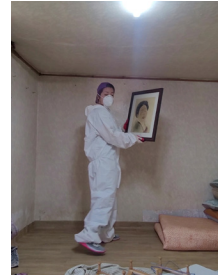
공간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벌어지는 사건·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이다. “사람”이 없다면 자연과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술 작품에는 그런 시공간을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 나는 그런 예술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이다.





창고가 필요해-2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창고의 자리가 정해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닥 평탄화였다. 육안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잔디와 잡초가 자라고 있던 땅이었으니, 적당히 자갈을 깔아 높낮이를 조절하면 얼추 수평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비닐을 깔고 작업을 시작하려던 순간, 생각보다 바닥의 기울기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닥 평탄화라는 건 머리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높은 곳의 흙을 낮은 곳으로 옮기면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면적이 넓어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봄, 집 안 바닥 시공을 하면서도 평탄화 작업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래서 얼른 비닐로 덮어 버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외면할 수도, 적당히 넘겨버릴 수도 없는 필수 작업이었다. 결국 하루를 더 쓰기로 하고 처음부터 땅을 다시 뒤엎었다.

잔디가 짙게 깔려 있는 흙바닥은 삽질조차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비닐 위에 깔아둔 자갈까지 다시 걷어내야 했다. 작업 순서상 남편이 자갈을 너무 일찍 깔아버린 탓이다. 덕분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곡괭이로 땅을 내려찍고, 삽으로 높은 곳의 흙을 퍼서 낮은 곳으로 옮겼다. 이쯤 되니 평탄화가 아니라 완전한 막노동이었다.

요즘엔 소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시대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우리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기계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창고 하나 놓겠다고 이게

46. 2026.10

무슨 고생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다.

한참을 땅을 파헤치고 흙을 옮기기를 반복했다. 수십 번씩 수평을 확인한 끝에야 수평자의 물방울이 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드디어 수평이 맞았다.

창고 하나 놓을 자리를 만드는 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다. 아직 창고는 조립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땅과 한바탕 씨름을 치른 뒤였다.

우리의 작업 과정은 대략 이러했다. 평탄화한 바닥 위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검은색 비닐을 깔고, 그 위에 파쇄석을 덮는다. 그리고 파렛트를 올린 뒤 그 위에 창고를 짓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면 몇 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여섯 개의 파렛트를 철물로 하나하나 연결하고 단단히 고정해서야 겨우 창고의 바닥이 완성되었다. 집 하나 짓는데 기초공사가 왜 중요한지 몸소 깨닫는 중이었다.

평탄화 과정 이후, 파쇄석과 파렛트로 창고를 지을 자리를 만들었다.



드디어 조립식 창고를 펼쳐놓을 차례가 되었다.

우선 상자에서 부품들을 꺼내 한눈에 보기 좋게 늘어놓았다. 바닥면이 될 부분, 벽체가 될 부분, 지붕에 들어갈 판넬을 구분하고, 각 부위에 필요한 나사와 철물도 종류별로 정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다. 라이프타임은 조립에 필요한 나사를 여분으로 하나도 주지 않는다. 나사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작은 부품 하나도 허투루 다룰 수 없었다. 조립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사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라이프타임은 창고 종류가 다양하고, 모델에 맞는 조립 튜토리얼 영상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패드로 영상을 틀어놓고 화면을 확인해 가며 하나씩 조립해 나갔다.

남편은 주로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부품을 조립했고, 나는 다음 순서에 필요한 나사와 자재를 찾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 말하자면 남편이 주 조립공이라면 나는 자재 담당이자 보조 작업자였다. 영상 속 설명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품을 찾아 건네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렇게 둘이 역할을 나누어 창고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창고가 지어질 야외로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부품조립은 실내공간에서 차근차근 조립을 이어갔다. 처음엔 설명서도 영어로 되어있고 알파벳 부품번호도 생소하고 헷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곧 적응이 되어갔다.

바닥 자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바닥판은 홈과 홈을 맞춰 끼우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었다. 바닥의 위치를 잡고 나면 마지막으로 나사 몇 개를 박아 고정하면 끝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벽체를 세울 차례였다.

벽체는 창문이 포함된 패널 12개와 모서리 패널 4개, 총 16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바닥판의 홈에 벽체를 끼워 세우고,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은 나사로 고정했다. 바닥 작업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조금 더 걸렸지만,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벽체를 모두 연결한 뒤 마지막으로 출입문을 달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리

46. 2026.10

는 것이 있었다.

작업에 앞서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찾아봤을 때, 바닥의 수평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문을 다는 순간까지도 평탄화 작업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놈의 평탄화.....’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수평을 맞췄는데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일단 문을 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막상 문까지 달고 나니, 어딘가 어설프다. 아직 지붕이 없어서 그런지 집의 모양새가 영 허술했다.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휘청거릴 것만 같았다. 마치 종이를 오려 세워 만든 집

지붕이 없이 비맞고 있는 창고



처럼, 바람이라도 불면 그대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바닥과 벽체만 세웠을 뿐인데 어느새 저녁 6시가 되었다. 더는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계획을 세웠던 우리의 일정은 그렇게 하루씩 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지붕도 없이 여러여러한 몸체만 갖춘 창고가 빗속에 서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괜찮았는데, 남편은 그 모습이 무척 신경 쓰였다고 했다. 어쩌면 나는 내일이면 지붕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반면 남편은 밤새 비를 맞고 서 있을 창고가 걱정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렇게 걱정의 밤이 지나고, 다행히 아침에는 비가 그쳤다. 맑게 갠 가을 하늘이 우리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곧장 지붕 작업에 들어갔다.

지붕에는 먼저 기초가 되는 뼈대가 필요했다. 미리 조립해 둔 트러스 철골조를 중심으로 양쪽 지붕 패널을 벽체와 연결해야 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어쩌면 혼자서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붕만큼은 달랐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었다.

이 작업이 유독 까다로운 데에는 창고 자재의 특성도 한몫했다. 라이프타임 창고의 패널은 플라스틱 소재라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 이 유연함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기도 했다. 조립 과정에서 나사를 조일 때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패널의 형태가 미세하게 변형되기도 했다. 그러면 패널끼리 맞물리는 각도가 조금씩 어긋나고, 나중에는 나사 구멍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일이 생겼다.

단순히 설명서에 나온 순서대로 나사를 조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쪽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각도를 맞추며 나사를 조여야 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손발을 맞추는 일이 중요했다.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남자 직원은 조립을 담당하고 여자 직원은 패널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와 똑같은 구성이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영상 속 여자는 그저 손끝으로 가볍게 패널을 잡아주는 정도였지만, 나는 있는 힘껏 당기고 누르고 있었다. 화면과



트러스트와 벽체, 지붕패널을 동시에 잡고 연결해주는 작업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노동력의 차이가 있었다. 지붕 패널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갈 때마다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쬘던 햇빛이 조금씩 가려졌다. 쓰러질 듯 한 창고는 어느새 단단히 고정되어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9월의 한낮은 여전히 뜨거웠다. 정오를 훌쩍 넘기고 식사 시간마저 한참 지나 있었지만, 우리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끼니를 거르고 있었다. 사실 배고픔보다 목마름이 더 컸다. 우리 둘은 음료수와 물을 번갈아 들이켰다.

‘설마 오늘도 끝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런 공포심 때문에 밥을 먹을 여유조차 부릴 수 없었던 것 같다. 작업이 길어질수록 몸은 지쳐갔지만, 지금 멈추면 오늘도 창고를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았다. 어떻게든 끝을 봐야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지붕의 마지막 패널까지 고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운데 채광창이었다. 반투명한 채광창은 창고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을 따라 가운데에 길게 설치되는 구조였다. 영상에서는 이것 역시 간단해 보였다. 한 사람이 잡아 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아래에서 나사를 체결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다.

채광창을 제자리에 고정하려면 누군가 지붕 위에서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눌러줘야 했다. 그래야 아래쪽에서 나사를 끼워 고정할 수 있었다. 손끝으로 살짝 잡아주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내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있는 힘껏 채광창을 누르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힘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렇게 마지막 나사까지 고정하고 나서야 창고 짓기가 끝났다.

지붕의 패널들을 거의 고정시킨 형태



드디어 완성이었다.

창고 하나를 세우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체력이 필요할 줄은 몰랐다. 땅을 파고 수평을 맞추는 일부터 파렛트로 바닥을 만들고, 벽체와 지붕을 조립하는 일까지. ‘조립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온몸의 힘을 끌어다 써야 하는 노동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마침내 창고가 완성되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을 들이키며 버텼던 시간까지, 이제는 모두 창고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 귀했다. 창고는 마구 사용하려고 지은건데, 마치 집처럼 귀했다. 조금씩 스크래치가 나기만 해도 아까울 정도이다.

어쩌면 창고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담아둘 자리를 마련하는 일만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안에 무엇을 넣고 살아갈지, 무엇을 버리지 못한 채 간직할지 매번 결정하는 선택의 공간일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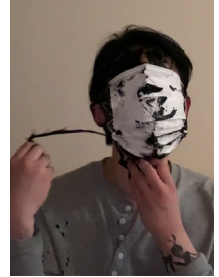


지붕 위에서 채광창 조립을 마무리하는 중



삶을 진정성 있게

김 희 진
노동자



용도를 확인하고자, 선불리 등에 업은 것이 누구냐고 묻지 말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굳이 다시 잠을 청하는, 께인 장을 애써 무시하는 사내야. 지금껏 그렇듯, 모르는 편이 오래 견디는 데에 훨씬 이롭다. 이름을 묻거나, 돌아서 얼굴을 확인하면 더 이상은 버릴 수 없는 것이 된다.

밤새 조금씩 불었다. 처음은 마른 솜 한 줌만 하였으나, 새벽께에는 제법 사람의 무게를 흉내 내었다. 상한 것들은 썩으며 미열을 내는 법이라 따듯하구나. 그 온기 싫지 않아 이불을 한 겹 덜 덮었다. 참으로 못된 것은 대개 쓸모가 있다.

아침이 오면 눅은 다시 가벼워졌다. 대신 베개가 젖고, 겨드랑이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다. 나는 내 몸에서 난 것인지 업은 것에서 났는지 가려보려다가 그만두었다. 포자는 주인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세면대에 얼굴을 처박고 울면서 물을 틀었다. 배수구에서는 검은 털 몇 가닥이 물을 먹으며 서로 얹혔다. 어제든 그랬던 것들이다. 물을 내려도 대개 멀리 가지 못한다. 관 속을 조금 기어가 찌꺼기에 걸리고, 불고, 마침내 무엇이었는데도 모를 덩어리가 된다.

사람도 아마 그렇지. 산 동안 제 이름을 너무 자주 불리니 잠시 모양을 유지할 뿐, 오래 젖혀두면 아무것이나 된다.그날도 등을 굽으려 손을 뒤로 돌렸다가 손끝에 축축한 것이 잡혔다. 천인지 살인지 알 수가 없어 좀 당겼다.

뒤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났다. 입에서 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뒤로는 굽지 않겠다.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 병이 아니고, 이름 붙지 않았으니 식구도 아니다.

그 정도의 무지가 한 몸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아침을 건디고 나면 남의 앞에 서야 한다. 오래된 무릎은 계단의 높낮이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 어느 날부터 다리를 굽히는 일에도 순서가 생겼다. 생겼다고보다는 원래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알아챈 것인가. 어쨌든 멀쩡한 것을 내딛고, 나머지를 끌어다 붙인다.

몸에 익은 순서이지만 불편하다고 생각도 좀 한다. 남들이 걷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아무렇게나 다리를 쓰는 것이 좀 해퍼 보이기도.

낮에는 남의 모르는 것을 가르쳤다. 대개 열일곱이나 열여덟쯤, 스물 이전이 된 것들이다. 몸이 덜 썩은 것들이 무엇이든 물어댄다. 어찌하여 그런지, 반드시 그러한지, 다른 것은 없는지. 나는 칠판에 몇 가지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는데. 나도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에도 무엇 하나를 뺏어내곤 한다. 여러 해를 그래왔으므로 제법 거짓말도 능숙해졌다. 모른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모르는 채로 좀 더 건디라 일러두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다.

한 시간쯤 떠돌고 나면 목 안쪽이 부었다. 침을 삼킬 때마다 무언가 걸렸고, 그것을 뱉어내려 헛기침을 하면 검은 가루 같은 것이 혀끝에 묻어났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먼지털 몸에서 남은 것이라 생각하겠다. 몸이란 것도 오래 쓰면 앞서 살던 놈들의 흔적이 남기 마련일 것이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낮에 한 말을 밤에 한 번 더 하였다. 사람이 없는데도 누군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화면 안의 사내는 아직도 너무 굳어있더라. 당신, 왜 나를 지켜보는가? 그를 잘라내어 순서를 바꾸고, 더듬거린 말을 없애고, 숨 고르는 시간을 덜어낸다. 그렇게 하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알아들었다고 말하겠지.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떠들었는지 숫자로 확인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몇 명이나 머물렀는지, 그중 몇이나 다시 올 것인지. 손톱만 한 숫자들이 밤새 오르내렸다. 아무리 헤아려도 아무도 모른다. 등에 업은 것이 날마다 무거워지는데 숫자는 좀처럼 늘지를 않는다.

말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글을 썼다. 그러다 글자마저 성가셔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짧은 비디오를 본다. 한때는 그것을 자유라 불렀으나 지금은 달리 부르지 않는다. 이름을 붙이면 또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 테니까.

오래된 방에는 그림 몇 점이 세워져 있었다. 처음에 내가 그린 것들이었으나 이제는 장담할 수 없다. 벽에서 스며 나온 물기가 천에 들러붙고, 먼지도 색을 덮고, 이름 모르는 벌레가 표면을 기어 다녔다. 그것을 보고 한동안 기뻐다. 나 없이 나를 버린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펍 사랑도 했다. 더러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내버려두는 일에 재주가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다. 가끔 찾아가 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질렀다. 마른 줄 알았던 곳이 아직 축축하였다. 물감인지 곰팡이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손톱 밑에 끼었다. 집에 돌아와 씻어도 검은 것이 조금 남았다. 이것도 먼저번의 몸인지 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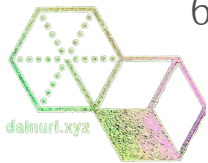








6. 모든 것의 확장 가능성과 확장 가능한 모든 것



조은영

기획자 / @ dalnurilab

가을이 되면 각 도시에서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가을이 시작 된 지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서울시를 통해 각 도시에 공공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 재원이 6년 사이에 많이 축제로 전환되었다. 나는 그것이 공간(장소)에 대한 주최 측의 관점이 자연스레 변화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칼럼에 이어서 시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우선 그러한 시공간 경험의 네비게이션이 된 달누리 3dWeb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안에 내재하는 시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가시화했던 달누리Web을 기획했던 2022년 12월에는 그 해 8월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한국의 첫 무인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달의 공전궤도에 진입했었다. 당시 달의 공전 궤도에 진입한 다누리호 기사를 보고 나는 이 역사적 사건을 가상 세계에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경험 세계에서 비롯된 시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우주비행으로 비유해 메뉴얼(Manual)화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윤달이라는 시간의 틈(間)에서 시작된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윤달(閏月) 개념에 대해 생소할 것 같아 우선 링크를 첨부하고, 앞으로 3번의 칼럼을 통해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1일과 1달)를 동서양이 어떻게 달리 계산하는지, 그러한 시차에 무엇이 내재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2022년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쏘아 올린 다누리호의 달 탐사는 그해 12월, 달의 공전 궤도에 진입해 2026년 현재까지도 탐사를 지속하고 있다. 원래 예상했던 탐사 기간보다 3년이나 더 연장 가능해진 이유는 ‘궤도(軌道) 역학’ 때문이다. 다누리호가 우주의 원심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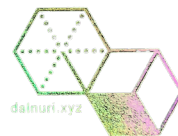
구심력의 균형점을 따라 공전하기 때문에 연료 손실이 적어져 탐사 시간이 연장된 것이다. 다누리호가 그러한 궤도로 진입했던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사이에 나는 대구예술발전소의 기술융합전시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의 마지막 달 탐사선인 아폴로 17호의 탐사가 50년이나 지난 시점에, 한국의 다누리호가 그 바톤을 이어간다는 사실이 당시 흥미롭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했던 시점인 1972년 12월 11일 02시 23분은 미국 동남부와 한국의 14시간 시차로 계산하면, 내가 태어난 1972년 12월 10일 새벽 6시와 불과 90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반세기가 지나 한국이 처음으로 달을 탐사하게 된 것이 내게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Apollo’의 이름과 대비되는 ‘다누리’라는 이름은 한글의 동사 ‘누리다’에서 파생된 것 같은데 국어사전을 검색하면 ‘다누리’는 다(多)문화와 누리집이 복합된 의미(네이버 국어사전)로 검색되어 의미가 모호하고 생경한 새로운 단어인 것도 흥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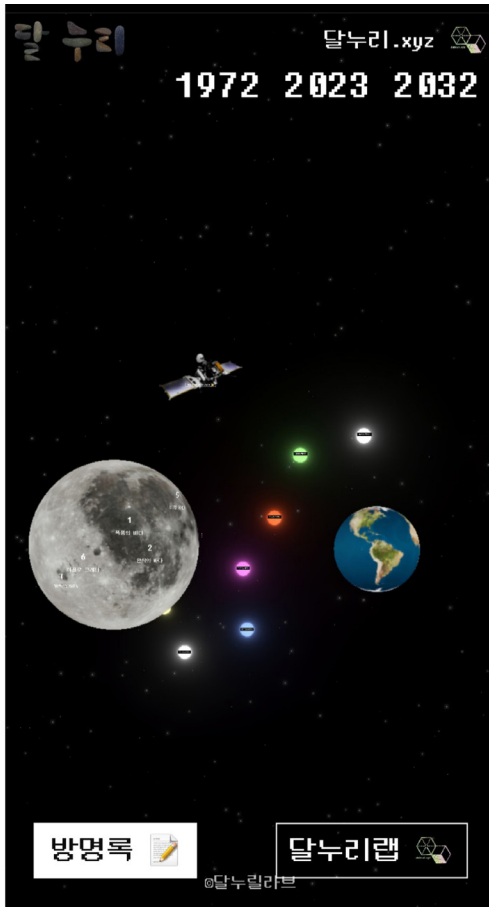
결국 나는 내 안에 내재하는 어떤 시공간 의식의 명칭을 ‘달+누리다’를 더해 ‘달누리’로 이름 지었고, 3개의 서로 다른 시점인 1972년과 2023년, 미래에 도래할 2032년의 시간의 3차각 구도에 다누리호가 탐사하는 달의 뒷면과 앞면의 7개의 장소와 지구의 두 개의 장소를 북두칠성 7개의 별을 중심으로, 다누리호와 함께 자전과 공전하는 매카니즘을 시각화해서 3dWeb을 만들었다. 그 당시 지구의 두 장소에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동경을 선택한 것은 2017년 동경예술대학교에서 보았던 고구려고분벽화(평양의 강서대묘)의 ‘주작 모사화’ 때문이다. 2023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했던 2개의 전시 중 앞서 열었던 ‘神(神)천상열차분야지도’ 전시에 한,중,일이 공유하는 천문도(天象列次分野地圖, 1395)에서 북반구에서 관찰되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3개의 작품을 연결했고, 달누리 3dWeb을 시연하는 ‘마:音 우주 정거장’ 전시는 실시간을 반영하는 2개의 작품을 서로 연결해서, 600년 전 우리의 천문도에 내재하는 시공간 의식이 어떤 건지, 이 두 번의 전시를 통해 관람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중,일이 공유했던 전통 별자리 체계에서 주작은 남쪽을 상징한다. 동서남북에 각 7개의 별자리를 배치한 좌청룡*우백호*남주작*북현무의 4방(方)의 공간은 7일 중에 火,

水,木,金,土(중심)의 5일의 시간과 연결되고, 일월성수(日月星宿)의 월요일과 일요일을 더 하면 우리의 7일이라는 시간은 이 전통 별자리 구조와 연결된다. 그러한 시공간 의식을 반영한 것이 바로 ‘달누리3D웹’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각각의 7개의 별 속에는 훈민정음해례본(1.천추성)의 자모음 구조와 전통 별자리 구조의 시공간 의식 간에 서로 교차하는 것들을 기록했다. 600년 전 한글이 창제될 무렵 탁본 된 천문도(天象列次分野地圖)가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서울의 사대문을 비롯해 한양도성의 안과 밖의 모든 장소가 이 천문도를 기준으로 600년부터 설계되었다는 것을 기획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천문도와 전통 별자리 체계가 그려진 고분벽화가 일본에도 있는 사실을 두 번의 방문을 통해 발견했다. 2017년 처음 동경예술대학 전시관에서 보았던 주작(朱雀) 모사화에 이어 2025년 두 번째 일본 여행에서 한국의 남대문과 유사한 헤이조궁(平城宮跡)유적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주작문(朱雀門, 1998년 복원)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긴 다음 칼럼에서 이어간다.



www.dalnuri.vercel.app/
기획자 조은영@dalnurilab





Long Goodbye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지난 봄

한가득 피었다가 우드득 무너지듯 떨어지고 마는 목련을 보았다.

또 봄이 가는구나

언젠가부터 거리에서 목련을 보면 귀족 부인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신분이 평민 이하 일 것 같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다.

흰 블라우스 깃 세우고, 꽃꽂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목련 부인. 크림색과 자색이 어우러진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귀족다운 기품이 느껴졌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우아했다. 세상은 미세먼지로 그득해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며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는데, 매일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자세는 존경하고 싶었다.

점차... 날은 바람이 불고 따뜻해 져 갔다.

목련 부인의 드레스가 헤어지고, 너덜해졌다.

봄이 가고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목련부인

다음 봄이 와도, 이 목련을 다시 만날 수 없다.

Long Goodbye
50x30cm, 수성 목판화, 2026



46. 2026.10

며 머릿속은 록밴드-Camel이 등장했고 그들의 곡 〈Long Goodbyes〉를 노래했다.

‘Long Goodbye’

Camel은 끝나지 않는 이별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고, 나는 나무판에 목련 부인을 새기고 종이에 찍었다. 꽃이 피고 지는 한 계절, 한철의 추억을 회상하고 돌아오지 못할 그 시간에 ‘Long Goodbye’라고 말한다.

추억은 방울방울~

꽃잎은 눈물로 맺혀 툭 떨어진다.









광주에 내려가면 꼭 상추튀김을 먹고는 한다. 이것 저것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부른 와중에도 반드시 먹고 만다. 상추튀김은 상추를 튀긴 것이 아니라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것이다. 상추 튀김을 처음 접했던 십 여년 전, 나는 상추튀김이란 단어만 듣고는 일본식 야채튀김을 떠올렸었다.

사실 상추튀김 자체는 복잡한 요리는 아니다. 잘게 잘린 오징어 튀김이 있고 신선한 상추, 양파와 고추 등이 다져진 간장(아마 양조간장 같다)이 전부라면 전부이다. 내가 자주 가는 가게는 여기에 양배추 샐러드가 나온다. 아마 튀김의 느끼함을 간장 양파만으로 잡기에는 짠 감이 있으니 상큼함을 얹어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 맥주 한 잔 까지 걸치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오징어 튀김이 사실 우리가 아는 탱글탱글하고 살이 두툽한 오징어 튀김이 아니라고 한다. 마른 오징어를 불려서(사이다에 불리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도톰하게 만든 다음, 그것을 토막 내어 튀긴 것이라고 한다. 그게 옛날 방식의 오징어 튀김이라고. 요즘처럼 통통한 오징어 살이 대량으로 한 봉지에 잘 나오는 때에는 마른 오징어를 불리고 손질하는 작업이 더 손이 갈 것이다.

나는 광주 금남로의 한 가게를 유독 많이 갔는데, 사실 그 집이 엄청나게 맛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일대에 상추튀김을 파는 곳이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 한 곳이기 때문이다. 광주 내에 상추튀김을 파는 곳이 줄고 있다고 한다. 꽤나 아쉬운 얘기이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이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10 / 통권 46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ISSN : 3059-0280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pigheadlab

이번호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이동민, 이채연, 조은영, 한량윤씨, X